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26호(97/2/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노동법 · 안기부법 개악 · 한보비리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가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은 언제입니까?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박래군(사무국장)

자연은 무심합니다. 지난 추운 겨울 것처럼 많은 사건들에 이별의 말 한 마디 남기지도 않은 채 계절은 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울 바람이 차갑기만 하지만, 남쪽에서는 매화가 피었다는 꽃소식도 들려옵니다. 옷 가게에는 벌써 화사한 봄 옷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와 그로부터 노동자들의 정치파업이 이어졌으며, 노동자들의 4단계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한보사태가 터졌고, 황장엽이라는 북한 당대 최고의 사상가가 망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보 문제를 뒤덮을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국제 관례를 깨고 망명 의사를 밝힌 지 7시간만에 서둘러 발표하고 말았으며, 이젠 한보도 의혹만을 남긴 채 덮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역시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삿일이 아닙니다. 황장엽이라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소위 고정간첩이 수만명이 있다고 떠들어댔다고도 하고, 안기부는 권력층에까지 고정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안기부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은 뻔하고, 그 선봉에 김영삼의 심복인 박일룡이가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인권상황은 대선 직전까지 굵직굵직한 국가보안법 구속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견하는 우리의 준비는 매우 미미합니다. 안기부법은 이대로라면 임시국회에서도 그대로 굳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사회운동 세력들도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위해 힘을 신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거 나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잡아갈 때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사회주의자를 잡아갈 때는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동성애자를 잡아갈 때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하면서 히틀러의 독재를 묵인하다가 결국 모든 국민이 히틀러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비록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옹죄는 악법과 독재가 있을 때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독재를 묵인하는 동조자가 된다는 역사적 진리를 새삼 뼈저리게 느낍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지금은 꽃을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진정한 봄을 피우기 위해 앞서갔던 선배들을 기억할 때입니다. '참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향한 끊임없는 모험 속에 있다는/투쟁속에서만 인간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김남주 시인의 시구를 되새기면서, 어려울수록 꾸준히 지혜를 모아갈 때입니다. 이 봄은 어려운 만큼 희망찬 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 / 업 / 보 / 고

(97년 1월 셋째주부터 2월 둘째주까지)

대선기획은 추진, 조직재편 방향은 재론키로

-제 34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제34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열렸다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1년만에 인도에서 귀국한 강경선 부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서대표, 김동한, 장호순, 이상영, 윤기원 운영위원, 박래군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1. 96년도 사업평가와 97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사무국 제출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원안의 내용은 지난호에 게재). 단, 사업계획중 대선 기획 사업과 조직 재편 계획에 대해서는 길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대선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의식과 취지는 동의하나, 김영삼정권 인권보고서(대선용)가 변협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의 축소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보고서가 변협 보고서와 차별성을 갖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김영삼 정권의 대선 공약 중 인권관련 공약의 실현 여부를 진단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대선 직전 인권대토론회를 갖도록 하며, 이 사업을 위해 4월까지 소수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직재편의 문제에서 현재의 자문위원회를 이사회와 후원회로 재편하는 방향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조직 재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자칫 논의의 혼선과 조직적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는 굳이 재편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었구, 많은 인적 자원이 결합하는 것보다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업의 성과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등의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서대표가 자문위원들을 먼저 만나 이사회 구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이사회 구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후 이사장 후보를 접촉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재론키로 하였습니다.

3. 과거청산국민위원회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가입의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과거청산국민위원회에 사무국장을 파견한 것도 추진하였으며, 과거청산국민위원회의 사업에 적극 결합하되 역량상 별도의 과거청산 계획은 수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김의연씨 수습 채용에 대해서도 추진하였습니다. 김의연씨는 외국어대학교

88학번으로 지난 9월말부터 자원봉사자로 결합하였다가 올 1월부터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으며, 3월까지 견습과정을 지켜 본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기로 했습니다.

5.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1회 개최하기로 하고, 가장 적당한 시간을 운영위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 회의 이후 진미식당과 알펜호프에서 인도에서 1년간 생활하다 귀국한 강경선 부운영위원장의 귀국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승현 민변 사무국장(현 자문위원)과 사무국 간사들이 참가하여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부운영위원장은 인도에서의 생활을 재미있게 설명하여 주었으며, 3월호 회지를 통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연수학교 학생들 연수 마쳐

일군의 대학생들이 사회단체로부터 전문적인 영역의 운동을 배우고자 실시된 사회연수학교 참가자 중 10여명의 학생들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매일 평균 4-6시간의 교육과 4시간의 자료실 작업을 했고, 이를 통해 인권의 기초를 게임과 함께 배웠습니다. 이중 연세대생들은 이후에 자원봉사자들로 결합하여 2명의 대학원생은 아동권 책자 자료 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1명의 학부생은 1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4일 평가를 마치고, 사랑방 실무자들과 뒷풀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뒷풀이 이후 정보나눔이 자원봉사자 대표인 구본권(서울대 법대) 학생이 술에 만취해 전철역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한때 병원에 입원하는 불상사도 일어났습니다. 어쨌건 처음 실시된 대학생들의 사회연수 교육을 통해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문제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의 초보적인 인식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욕구를 확실히 충족시켜 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 더딘 행보

과거청산국민위원회의 발걸음이 매우 늦으나마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격주로 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2월 12일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5.18특별위원회(황인성), 국제연대위원회(김경남), 학술연구위원회(안병욱)에 대해서는 위원장(팔호 안)과 간사를 확정지었으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개별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먼저 만들 것인가, 전체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먼저 만들

것인가를 놓고 논의하다가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정책기획실(실장 백승헌), 5·6공인권침해신고센터(소장 황상익)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에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으로, 사무차장을 한국교회인권센터에서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 추모사업회연대회의가 3월6일 성공회성당에서 갖는 민주화운동과 열사·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세미나를 후원하기로 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하는 5.18 학술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는데, 우선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작업이 올해의 가장 큰 목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사업계획안을 확정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인권피해신고센터를 3월중에 개설하여 사례가 모아지는 데로 월 1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자료집을 묶어내기로 하였고, 5월에는 사면반대운동과 추가기소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립총회는 4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가 국민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이 매우 미미하여서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작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국민위원으로 서준식 대표와 강경선, 곽노현, 김동한, 김당, 장호순 운영위원, 김거성, 장의덕, 우명주 자문위원, 박래군 사무국장 등 10명을 추천 하였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시민운동지원기금 보고서 작성, 오는 21일 발표회 가질 예정

제1회 인권영화제에 5백만원의 프로젝트를 받았던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지난 1월 보고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오는 21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96년 시민운동지원기금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방도 사례 보고를 하게 됩니다.

- SBS에 청송보호감호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

지난 2월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는 청송보호감호소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작팀은 사회보호제도가 이중처벌이며, 사실상의 징역형과 똑같은 전혀 감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사회복귀를 위한 어떤 훈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인권침해조차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 <인권하루소식> 기자 이창조씨가 출연하였고, <인권하루소식>에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윤치고(41)씨도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치고씨 기사가 하루소식에 실린 것을 계기로 그동안 방송사 쪽에 교섭을 하고, 임영화 변호사에게 의

되하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잊혀진 인권사각지대인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가 TV에 나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으나, 아직은 관심 정도가 매우 미약합니다. 이에 따라 사랑방은 공개적으로 이들의 신고를 받아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인간적인 사회보호제도의 개선 내지는 철폐를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청송보호감호소 또는 사회보호제도에 대해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 신년하례회 가져

2월 14일 자원봉사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필요한 일을 한동안 도와주다가 그냥 떠나는 식의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급히 된 관계로 4명의 자원봉사자만 모여 이후 개별 접촉 후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사무국 숙원사업 복사기 구입

복사기를 2월 초 드디어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쓰던 신도리코 중고 2대는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복사기는 여의도에서 열린 중고시장을 통해 총 24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이를 제 가격으로 구입하려면 무려 420만원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한결 사무실 업무가 밝아졌습니다. 복사기 구입을 위해 땀과 돈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국 업무 보고>

자료실: 3월중 데이터베이스 완성을 위해 박차

자료실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순항중입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3월중으로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될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손을 봐서 상반기 중에는 통신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보 자료의 질의 문제는 더 따져 보아야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완성은 자료실 사업의 일획을 긋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보실-합본 7호 곧 발간 3월 시평 게재, 3월초 워크샵 개최

홍보실에서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본 7호에는 96년도 하반기 인권상황을 정리한 글과 부록으로 5.18 재판에 대한 평가, 연세대 사태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가 실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은 3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평을 신습니다. 처음 시평을 맡아줄 분으로
는 운영위원이신 곽노현 교수님과 김동한 교수님으로 선정되어었습니다. 두 교수
님은 약 6개월간 필진으로 활약하실 것입니다. 시평은 격주로 실리게 됩니다. 또
한, 인권영화를 소개하는 영화평도 격주로 실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3월초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
다. <인권하루소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 전문지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을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다른 매체로의 변화 등 주제별
로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듣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교육실: 주제별 패키지 작업 진행중

대학생들의 인권교육 요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 자료가 없는
처지를 고려하여 인권 주제 10여가지 별로 패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기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패키지가
완성되면 약 2천원씩을 받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기초, 중급,
고급 등의 단계별 패키지도 만들 예정입니다.

총무부: 유서사건자료집 처분, 해외 펀딩 확보 노력

사무국 안에 총무와 국제연대를 묶어서 사무국장이 관할하는 총무부는 서대표
와 함께 유서사건 자료집 처분과 국내외 펀딩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유서사건 자료집은 국내외 우수한 도서관(또는 연구소)와 자문위원들에게 보
낼 예정이며, 자문위원들께는 무료로 기증하려고 합니다(광고문안 참조). 또한, 국
내외의 기금을 찾아서 막힌 재정을 뚫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
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 서준식 대표: 제2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자문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이후 조직재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기부법의 개악과 관련 인권운동 인사들과 대책을 협의 중에 있
습니다.

◇ 곽노현 운영위원: 2월 27일 안기부법에 대한 국내외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
여서 국제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곽노현 운영위원은 매우 열심히 뛰고
있으며, 상당한 외국의 전문가들을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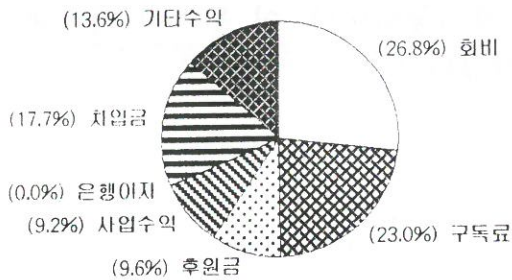
◇ 김형태 운영위원: 천주교인권위원장이기도 한 김운영위원이 지난 2월 10일
등산 다녀오던 중 넘어져 뇌를 다쳤습니다. 김운영위원은 1주일간의 병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병세는 뇌에 피가 고여서 일부 감각기능
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함께 쾌유를 빕시다.

96년도 재정결산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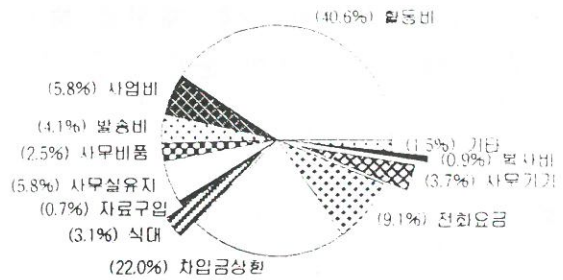
(각 항목은 월 평균 수치임)

수 입		지 출	
회비	2,690,985	활동비	3,855,417
구독료	2,304,982	사업비	553,272
후원금	964,617	발송비	387,697
사업수익	926,619	사무비품	226,228
은행이자	4,054	사무실유지	553,265
차입금	1,775,000	자료구입	69,470
기타수익	1,367,986	식대(야근)	295,423
		차입금상환	2,088,117
		전화요금	866,464
		사무기기	349,559
		복 사 비	86,903
		기 타	147,017
계	8,904,237원	계	8,320,868원

수입평균(월)



지출평균(월)



* 97년 1월분(1월16일-2월15일) 재정보고는 사무국 재정 프로그램이 깨진 관계로 내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복구하는 대로 결산을 뽑아서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깊은 양해있시길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워크샵

때: 1997년 3월 5일(수) 오후 4시 장소: 성가수녀원(미정)

내용: ① 인권운동에 있어서 <인권하루소식>의 역할(서준식 대표)/② 취재력 보강과 편집방침에 있어서 일반신문과의 차별성(손석춘 한겨레신문 기자, 미정)/③ PC 통신시대의 <인권하루소식>(김형준 바른통신 대표, 미정)/④ <인권하루소식> 마케팅 전략(김거성 기독교컴퓨터센터)/⑤ 포맷 혁신과 주간지·월간지화의 가능성(김경환 말지 기자)